

계엄 실행 '육사 4인방', 민주주의 향해 총 겨누다

선배 김용현 국방 계엄 건의에 후배 특전·수방사령관이 군 동원 경호처장 시절 공관 회동 하기도 충암고 출신 논란 속 군 내부 뒤숭숭



김용현 국방장관 박안수 육참총장 박중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전격 선포한 비상계엄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에 옮긴 인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 '4인방'이 거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을 필두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박중근 육군특수전사령관(47기)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등이다.

4일 군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철저한 보안 속에서 비상계엄 계획과 실행을 준비했다. 이번 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다수 참모를 비롯한 군 고위 당국자들에게도 공유되지 않은 채 긴박하게 이뤄졌는데 김 장관이 이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계엄사령관으로 육사 8기수 후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박 사령관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명됐다.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군 내부에선 현역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실제로 합참에는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 '계엄과'가 있다. 김 의장은 육사가 아닌 해군사관학교(43기) 출신인데, 일각에선 이 같은 점이 계엄사령관 인선에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3일 밤 10시 23분께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국회와 정당 등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한 계엄사 1호 포고령을 내렸고, 포고령 발표 약 30분 후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닥쳤다. 동원된 계엄군 병력의 원소속은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특임대 등으로 알려졌다. 박중근 특전사령관은 김 장관의 육사 9기수 후배,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10기수 후배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실질적으로 병력을 움직인 두 사령관은 올해 초 논란이 됐던 김 장관의 '공관 모임' 멤버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경호처장 재직 시절이던 당시 한남동 공관모임으로 박 사령관과 이 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등을 불러 모임을 한 바 있다. 아담은 지난 9월 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계엄령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 장관은 "정치 선동"이라며 부인했다. 이 모임이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의 군내 사조직이란 의심 받는 '충암파'(충암고 출신) 논란이 확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비상계엄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된 이후 군 내부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을 연기했고, 이날 배포 예정이었던 각종 보도자료도 줄줄이 순연했다. 김명수 합참의장도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 일정을 취소한 뒤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고 군 지휘관들에게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연합뉴스

“계엄군 실탄 지급·저격수 배치 제보 받았다”

민주 박선원 의원 “707 특임단에 2일부터 출동 대기명령”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경내에 진입한 계엄군에 실탄과 기관단총이 지급됐고 현장에 저격수도 배치됐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낸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불법적 전위 쿠데타에 참여한 장병들로부터 계엄군 내부 동향과 임무 등에 대한 여러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계엄군으로 출동한 707부대 특수임무단 등에는 지난 2일부터 출동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며 “당시 외부훈련이 모두 취소되고, 주둔지 대기 명령이 하달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일인 3일 낮에는 합동 훈련과 전술 평가가 취소됐고 출동 공장 검사 등의 준비가 시작됐다고 전해진다”며 “계엄령 발표 뒤인 지난 3일 밤 10시 30분께엔 바로 휴대전화 회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령 발표 이전인 지난 3일 오후 8시경부터 707특수임무단 단원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

을 통해 실제 출동 예고와 대기 명령이 하달된 상태였다”면서 “이런 준비를 거쳐 계엄령 발표 1시간 만에 계엄군이 헬기를 통해 국회로 출동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계엄령 발표 직후 실탄도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707특수임무단은 샷탄, 소총, 기관단총, 야간 투시경, 통로 개척 장비 등을 갖췄고 (현장에) 저격수들도 배치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부대별로 체계적 명령이 하달된 것으로 전해진다”며 부대별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07특수임무단은 국회 분청 진입과 요인 체포 및 본회의 해산을, 제1공수특전여단은 707특수임무단의 분청 진입 시 외곽 경계 임무를, 제3공수특전여단은 전시 계엄지휘소로 예정돼 있는 과천 B-1 병거 경계,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은 UH-60P(블랙호크) 특수 작전용 헬기로 병력 수송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SDT)는 요인 체포조 또는 예비대로 운용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주한 美대사 “계엄령에 놀라...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고무”

필립 콜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4일 “지난밤 발생한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싶다”면서도 “그와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으로부터 고무되고(encouraged) 있다”고 말했다. 콜드버그 대사는 이날 오전 언론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다 해제된 비상계엄이 자신에게도 “놀라운 일”(came as a surprise)이었으며 “비상계엄 발표 직후 그 소식에 잠에서 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언론 질의에 보내는 답변에서 “미국은 이 발표(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고 밝

힌 바 있다. 콜드버그 대사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저희는 계엄령이 해제됐을 때 안도감(relieved)을 느꼈다”며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한국 국민이 사안을 평화적, 민주적, 헌법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콜드버그 대사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직원들과 소통해 대사관 공동체와 미국 시민이 (한국에서) 발생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공지를 발송했다”면서 “워싱턴에 있는 동료들과도 긴밀히 협력했다”며 대처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후 입장 밝히는 여야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예언 맞았다

지난 8월 김용현 국방 내정 때 계엄령 “근거있는 확신” 의혹 제기

윤석열 정권의 ‘계엄 시도’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사진) 최고위원의 과거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이 계엄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것은 지난 8월 윤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내정했을 때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

며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도 같은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실은 지난 9월 2일 정해진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계엄 준비 의혹’을 “과당 선동”으로 규정하고 이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정 대변인은 해당 브리핑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럴수록 김 최고위원은 더 강하게 ‘계엄 의혹’을 추궁하고 나섰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



관 등 대통령과 총암고 동문인 군 인사들의 계엄 음모 의혹을 제기하는 등 지속해서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 김 최고위원은 9월 20일에는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시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헌법에는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장치가 미흡하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4일 MBC 라디오에 나와 “계엄령 가능성을 내다본 근거는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 근거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연합뉴스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